

낙동강 유역 지하수 중금속 검출

지역 지하수가 오염된 것으로 조사됐으며 수은과 납은 검출되지 않았다. 연일

대구·울진·고령 등 일부지역

낙동강 유역의 공단 밀집지역이나 폐광지역의 일부 지하수에서 검출된 산성도 및 염소이온, 중금속이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정희수(한나라당·경북 영천) 의원에 따르면 '2006년도 지하수 관측연보'를 분석한 결과 대구, 포항, 구미, 안동, 울진, 문경, 고령 등지의 낙동강

유역 암반층과 충적층에서 산성도와 염소이온뿐만 아니라 인체에 치명적인 해를 끼치는 중금속 물질로 알려진 비소, 수은, 납 등이 기준치를 넘어 검출됐다.

건설교통부와 한국수자원공사가 지난해 말 발간한 '2006 지하수 관측연보'는 2005년도 지하수관측소의 자료를 토대로 작성됐다.

2005년 상반기 조사에서는 대구 비산 충적층의 경우 산성도(PH)가 11.7로 기준치인 5.8~8.5을 넘었

으며 포항 연일 암반층은 염소이온 수치가 497로 기준치(250이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기준치가 0.05mg/l 이하인 비소도 대구 비산 충적층에서는 0.492mg/l가 검출됐다.

이와 함께 울진 북면 암반층에서는 검출되지 않아야 할 수은도 0.015mg/l 나왔으며 고령 충적층에서는 납이 0.140mg/l로 기준치(0.1mg/l 이하)를 초과했다.

2005년 하반기 관측에서도 일부